

웃둥 보살 빛둥 거사 <55>

구성 : 김흥민



남을 해치려다 손해 본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해 늘 시름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늘 근심에 잠겨 있는가?" 그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혐오하는데 힘으로는 그에게 보복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말했다. "비타라 주문(毘陀羅)이라면 그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만일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때 도리어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비록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남을 해치기 위해 비타라 주문을 구하지만 끝내 해치지 못한다. 그것은 먼저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해쳐,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에 떨어지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옛 판화의 세계

문수보살에게 법을 묻다 문법문수(問法文殊)



고려시대 문수보살도(文殊菩薩圖) 판화(半部)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국사 법조 스님이 오대산에 이르러 푸른 옷을 입은 선재동자와 난타라고 칭하는 두 동자의 인도로 석문으로 들어가 죽림사라고 붙여있는 전각에서 문수·보현보살을 진건하고 문수보살에게 법을 묻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법조(法照)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현산에 들어가 승원을 섬기며 미타대 반주도량에서 정업을 닦고 766년(대력1) 4월 장안 장경사 정도원에서 오회법사찬(五會法事讚)을 지었다. 대력 4년 행주 호동사의 고건대에 오회염불도량을 차렸으며, 오대산 대성 죽림사에 가서 문수·보현을 진건하고 염불하는 법을 받았다. 뒤에 화엄사 화엄원에서 염불도량에 들어가 죽림사기(竹林寺記)를 지었으며, 먼저 문수·보현의 설법을 받던 곳에 절을 짓고 죽림사라 이름 했다. 이때에 당나라 대종(代宗) 황제가 스님의 덕화에 깊이 귀의하고 궁중에서 오회염불을 수행케 해, 오회염불이 조야에 크게 행할 때 이에 세상에서 그를 일컬어 오회 법사라 했다. 시호는 대오(大悟), 저서는 오회법사의 3권, 오회법사찬 등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법조 스님은 문수·보현보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었다. '말세의 법부는 어떤 법문을 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수행하는 법문 가운데 염불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너는 마땅히 염원을 아미타불에 매어두고 결정코 정토왕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두 보살이 함께 팔을 펴서 정수리를 쓰다듬고 그에게 기별을 주었다. 너는 염불의 힘으로 궁극에 가서

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문수보살은 그 뒤에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여러 보살들이 사원을 찾아가 순례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스님은 여러 보살원을 겪어가면서 교수를 청하고 칠보원에 이르러 다시 대성죽림사(大聖竹林寺)로 돌아와 두 보살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을 하직하니 푸른 옷을 입은 두 동자가 전승해 문 밖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다시 절을 하고 머리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회 법사라고 불렀던 법조 스님은 문수보살의 수기를 받고 오회염불을 창시했으며, 오회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다섯 음의 곡조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염불하는 수행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백불광장)



시가 있는 도량

■ 감전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154,000원 특고압

보는 것만으로도 환해지고 온몸이 전율하며 가슴이 겹겹이 타는 충격

지금 고희의 붉은 장미군단이 지나간다 처음보는 팽등신 미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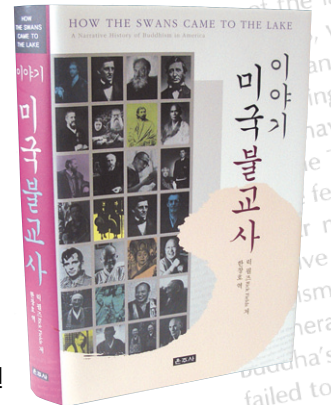
-윤여설 신작시집 <푸른 엄지족>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계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저, 한창호 역 /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 불교사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